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19.(수) 11:00 < 7.20.(목) 조간 > 배포 2023. 7. 19.(수)

디지털 기술로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전기실 지능형(스마트) 제어로 실수 최소화, 위험 현장에는 로봇 활용-

한 번의 실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작업 현장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사람이 직접 하는 육안 관제·수동 조작 대신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원격 제어하고, 로봇과 드론이 위험한 현장 작업을 지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7. 19.(수) 지능형(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작업 현장(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을 방문했다. 여름철 전력 수요와 공급 집중 관리 기간(6. 15.~9. 15.)을 맞아 발전사들의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지능형(스마트) 안전기술이 적용된 발전설비를 살펴봤다.

발전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총 53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감소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능형(스마트) 안전기술에 지속 투자한 결과다. 취수구 퇴적물 제거, 저탄장(석탄 보관 창고) 감시 등 위험성 높은 현장에는 보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작업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상태를 자동으로 인지해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서울발전본부는 대용량 도심지 지하 발전소(지하 34m)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전설비를 중앙에서 관제하는 전기실에 지능형(스마트) 제어 장치를 도입했다.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정비를 위해 모터를 끄게 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체계화(시스템화)하고, 로봇으로 원격 조작해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전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모인 5개 발전사 부사장들에게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